

‘SOC 예산 확대론’ 갈등... 전남도의회 파행

민주당-국민의당 공방 도의회로 확산

민주의원 표결 거부 퇴장 건의안 무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론’ 공방이 전남도의회로 확산됐다. 도의원들이 지역의 이익이 아닌 당리당락에 따라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간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전체 의원 57명 중 29명으로 과

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은 무산됐다.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건의안을 다시 상정·처리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건의안은 지역 간 양극화,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SOC 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SOC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일률적으

로 SOC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SOC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내년 전남 SOC 예산 요구액은 총 1조 8846억원인데 반영액은 9516억원(50.5%)으로 50%를 갖 남긴 반면 경북도는 요구액 대비 정부 반영률이 57.6%, 울산시는 60%”라며 “특히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영남이 거의 2배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남 SOC 예산 반영률이 부진해 지역간 양극화와 호남 확대의 근간이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일

률적 축소는 SOC 기반이 취약한 전남지역의 낙후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SOC 예산은 23%가 줄어든 반면 호남 SOC 예산은 16%밖에 줄어든 것”이라며 “호남 예산을 확대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호남지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현재 57명 의원 중 민주당 29명, 국민의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해야”

우승희 도의원 주장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도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13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남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 및 지원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우 의원은 전남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예우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례안 제정을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는 순국·전몰상이군경·참전 등 호국 및 독립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보상만 하고 공헌·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없었다.

전남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신청자 39명 가운데 315명이 인정받았다. 이 중 사망 9명, 상이 32명, 유죄·학사징계 등 274명이다. 우 의원은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 13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추진위원회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시대! 광주를 광주답게!’를 주제로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

광주시의회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의 직전 회의를 열고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오랫동안 현장 중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점과 문화정책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문화재단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며, 문화재단을 민주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공기관장 인사채용 원칙 기준 마련 등 질의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61회 임시회 개회식을 하고 오는 27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결정하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4건, 예산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18~20일에는 주경남·유정심·김용집 시의원이나 광주시 자체 행정통신망 구축, 상수도 누수 및 하천 수질 개선방안 촉구, 공공기관장 인사채용 원칙 기준 마련에 관한 시정 질의를 한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일환경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안 일부개정안과 퇴근 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용을 지양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교육문화위원회는 학교숲 조성 및 관련 조례안,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영남(서구3)의원은 광주시 관내 고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3만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 1·2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최고 콘크리트 주탑 이순신대교 관광명소화

광양시, 180억 들여 중마·금호 해상보도교, 생태공원 연계 개발

광양시가 세계 최고 높이의 콘크리트 주탑(270m)을 자랑하는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3년 2월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주탑의 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270m에 달하고 두 주탑 사이의 거리가 1천545m로 국내 최장거리를 자랑한다. 이순신대교의 주탑은 콘크리트로 건설된 세계 현수교 주탑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남산(262m)보다도 높다. 압도적인 크기의

이순신대교와 함께 광양제철소가 한눈에 들어와 밤이 되면 이국적인 야경이 연출된다. 야간 경관이 일품이지만 이순신대교 주변에는 별다른 관광 기반시설이 없어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고 지나쳐 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한 해상공원 개발은 대교가 개통된 지 4년여 만에 정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자금 90억원 등 180억원이 확보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양

시는 우선 18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중마해안공원과 길호대교, 금호대교, 이순신대교 주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무지개다리)와 마동체육공원, 와우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에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수상레저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가 1차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콘텐츠 구상 중간보고서에 따

면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11개 핵심 경관 포인트가 개발된다. 역사와 산업의 경계를 이어주는 이순신 역사존과 자연과 산업의 경계를 잇는 미디어존, 아트존, 빛의존, 컬러존 등 7개의 공간 구분으로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광양시는 달빛 카페존과 달빛 광장, 선샤인 브릿지, 판옥선 전망대 등 24개 콘텐츠에 1345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유람선과 수상 레스토랑 등 일부 시설과 콘텐츠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순신대교가 광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주시·장성군, 첨단3지구 조성 주민설명회

21일 북구 대촌동서

광주시와 장성군은 첨단3지구 조성 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계도서를 공개하고, 21일에는 북구 대촌동 첨단영락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3지구는 광주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안구 비아동 등 1.101㎢(개발제한구역 0.59㎢),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694㎢(개발제한구역 2.66㎢) 등 3.795㎢(개발제한구역 3.25㎢)에 조성된다.

조성공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맡

게 되며, 오는 20일까지 열람기간 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건축허가제한(안) 등의 관계서류가 비치된다. 비치 장소는 광주시청 투자유치과, 북구청 도시재생과, 광안구청 도시재생과,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등이다.

첨단3지구 조성 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광주시와 장성군에 제출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062-600-6731), 광주시 투자유치과(062-613-3892),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061-390-7484) 등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28	18	
	국제한국어교육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 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8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